

우린 왜 남을 증오하는 것일까?

최원석 | 과학칼럼니스트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90년대 코소보 사태까지 전쟁이나 학살 등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1억 5천 명이 넘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해마다 수 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폭력성이 특정 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부색, 민족, 종교, 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한 살인자로 돌변해 남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을 미워하며, 증오하여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일까?

영화 <스타트랙>의 별컨족은 감정을 조절하여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매우 이성적인 종족이다. 또한 <이퀄리브리엄>의 '리브리야'는 프로지움이라는 약을 먹고 사랑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을 억제하게 되는 사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관객들이 감성을 이성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에 별컨족과 지구인의 혼혈인 스팅이 간혹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며, <이퀄리브리엄>에서는 결국 감정을 통제하는 사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별컨족이 냉철하게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 약으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생각은 이성과 감성이 별개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며, 감정을 배제하

면 완전히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오해에서 생긴 것이다. 물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로 뛰어난 과학 기술과 고도의 사회를 이루어낸 지적 능력을 가진 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믿음과 달리 사람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감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환자는 뇌 기능의 대부분이 정상이었고 단지 감정적인 반응만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동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 않지만 감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진화의 산물로 뇌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 폴 맥린의 '3위 일체 뇌' 가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파충류 뇌와 초기 포유류의 뇌, 신생 포유류의 뇌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중 파충류 뇌는 생존을 위한 부분으로 먹이를 공격하고 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뇌의 공격성은 인간의 오랜 조상이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충류의 뇌는 우리에게 위협이 닥치면 '도망치거나 싸우기' 반응을 통해 신속하게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뱀을 만났을 때 심장박동 수를 높이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 즉시 도망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파충류 뇌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매우 유용했던 이러한 반응이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감정적인 반응이 전전두엽에서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할 때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폭력적인 시기는 아직 전전두엽의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유아기 때이다. 단지 이때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기 폭력과 달리 강도가 약해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파충류 뇌의 특징인 공격적인 성향이 전전두엽의 통제로 들어가면서 남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은 호르몬 수치가 바뀌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동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 공격적이다. 또한 도파민 수치가 낮아 다른 사람이 웃으면 그것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모든 것에 대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흔히 연쇄 살인범 기사에서 어린 시절 성장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폭력을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격적 성향 탓으로 돌리거나 어린 시절 불행했던 성장 과정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911테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1941년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폴란드인들은 평범한 마을 이웃들이며, 나치의 학살 부대원들도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잔인한 군중으로 만들었을까?

얼마 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테러를 당하는 경우나 미국에서 KKK단에 의해 흑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을 보면 이에 대한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증오가 전쟁과 학살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 <추노>에서 양반들이 노비를 사고팔고, 고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비가 양반과 달리 인간이 아니라 단지 양반들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발칸의 도살자라 불렸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코소보에서 과거 오스만 튀르크가 세르비아를 침략했던 역사를 들추어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오사마 빈라덴은 미국인들을 십자군과 같은 침략자이며 학살자라고 주장하여 이슬람 전사들이 적개심에 불타게 만들었다. 이러한 주장에 현혹된 시민들은 편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은 결국 증오를 낳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가치 체계를 관장하는 대뇌변연계에서 만들어진 증오가 감정을 통제하게 되면 결국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는 것이다. 편협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증오는 폭력에 대해 빠른 무감각화를 불러오고 신속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군중들을 집단적인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는 위력이 있다.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학살은 바로 이러한 증오에 의해 일어났다. 지극히 원론적인 결론이지만 빠르게 번져가는 증오를 없애는 길은 남도 나와 다르지 않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TTA**